

# “호스피스봉사 어떻게?”

이 란은 ‘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제1회 정기 총회’그룹토의 때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

## 1) 호스피스 봉사 어떻게 하고 있나? (경험담 나누기)

- 봉사자와 환자, 그리고 환자 가족의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.
- 환자를 방문할 때 대화를 조심하고, 봉사자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 환자가 얘기할 기회가 없어지고, 오히려 마음을 열어 놓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다. 환자가 얘기 할 때 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.
- 환자를 병원에서 가정까지 연결시켜 방문하였다. 좋은 점은 임종할 때와 장례때 까지 다 보게되고, “같이 있다”는 것에 대해 가족에게 호응을 얻게 되었다.
-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다 보면, 그들의 긴 병 때문에 그들을 돌봐주는 가족들이 많이 지치게 된다. 그러므로 환자 가족들에 대한 호스피스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.
- 환자가 장기 입원으로 지루할 때, 종이접기와 같은 작업요법이 효과가 좋았다.
- 환자를 대할 때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대하자.
- 환자가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 줄 때 환자가 가장 좋아하며, 방문 동안엔 환자를 위한 시간이 되어 줘야 한다.
- 환자 손을 잡고 사랑의 눈길로 봐 줄 때 그것이 사랑이다.
-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많이 들어 두도록 하자.
- 봉사할 때는 내용을 적어가면서, 공부하는 자세로 활동의 흔적을 남기도록 하자.
- 종교적인 밑바탕이 있어야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며,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다.
- 환자를 알게 된 순간이 그분의 마지막이라는 인식으로, 바로 호스피스 보살핌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.
- 환자의 마음을 볼 줄 아는 눈을 기르는 것과 환자들의 심리에 대한 특별한 공부가 필요하다. 그리고 환자들의 고통과 한을 들어주고,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도 풀어주고, 지지해 주면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통합적으로 봉사해야 한다.
- 많이 배우고, 지속적으로 사례 공부를 하는 것이 호스피스 활동에 도움이 된다.
-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압, 수지침 같은 것을 배우고 있다.
- 환자 찾기가 힘들어 동네 통장을 통해 아픈 사람을 소개 받아서 방문한다.

## 2)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보람은?

- 우리를 도구로만 쓰시고,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. 또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, 도리어 봉사를 받는 은총을 느꼈다.
- 따뜻한 마음으로 환부를 만져줄 때 통증이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, 경이로움을 느꼈다.
- 오랜 봉사를 통해 불쌍한 사람들, 가난한 사람들,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았다. 그리고 이

분들을 통해 하느님이 내게 베푼 은총을 느꼈고, 여건이 허락되면 천직처럼 봉사를 하고 싶다.

### 3)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겪은 어려운 점은?:

- 환자 상태가 악화되서야 비로서 호스피스 보살핌을 신청하는데, 이 때는 너무 늦다. 좀 더 빨리 환자와 만날 수 있으면 한다.
- 사별가족 만남을 하려 할때 다른 가족이 막을 때가 있다.
- 가족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, 오히려 경제적 손실로 푸대접 받으면서 이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을 볼 때, 심한 연민을 느꼈다.
- 병원 사정으로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.
- 꼭 알려야 하는 보고를 하다보니 먼저 가시는 경우가 많다. 환자를 알게 된 그 순간 바로 달려가야 하는 것을 여러번 경험했다.
- 환자 가족의 무관심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환자를 보면서, 슬픔을 당하는 환자에게 가족이나 봉사자들이 성의를 다해서 정성껏 끝까지 노력하자고 다짐해 본다.
-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봉사자들이 3~4개월 지나면서,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데,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다 함께 지속적으로 참여하자.
- 임종할 때 환자와 같이 있어주지 못한것이 안타깝고 괴로웠다.
- 말기 환자 대부분이 통증 조절을 위한 약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았다. 이때 도움을 줄 수 없는 스스로의 무능에 대한 회의로 갈등을 겪었다.
- 가정 방문할때 어려움 점-① 환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.  
② 교통 체증으로 길에서 소요하는 시간이 많다.  
③ 봉사자 교육이 어렵다. 성당 차원에서 봉사자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.

### 4) 호스피스 발전을 위한 바램은? (협회 건의 사항)

- 호스피스 센터가 있으면 한다. 그리고 가족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.
- 한국형 호스피스 모델을 정립해 주었으면 한다.
- 병원 호스피스와 가정 호스피스가 잘 연결되어 환자가 퇴원한 뒤에도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한다.
- 협회 차원에서 봉사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,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, 상담 프로그램을 보강해 주었으면 한다.
- 간호 봉사자와 자원 봉사자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원화 되어야 한다.
- 호스피스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으므로 협회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다.
- 협회 안에 있는 호스피스 기관끼리의 정보 교환이 잘 이루어 졌으면 한다.
- 홍보나 교육 분야에서 전문 요원의 협조를 바란다.
- 협회 회원들간의 유대관계와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.
- 호스피스 팀의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.
- 호스피스 협회가 발송하는 우편물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.
- 교육 때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에 맞는, 한국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을 강사로 초청해 주었으면 한다.